

이슈

2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제3063호

“빌보드 정상 정복 다시 한번”... 세계를 뒤흔든 방탄소년단의 힘

‘방탄’ 새 앨범, 이틀만에 전세계 음악차트 석권

전세계 86개 지역 아이튠스 차트 1위
뮤비도 37시간만에 최단 시간 1억뷰
빌보드 200 정상 정복 기대감도 증폭
美 SNL 첫 무대...에마스톤 “나도 আমি”

역시 글로벌 그룹이다. 방탄소년단이 12일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를 전 세계 동시 발표한 가운데 14일 현재 국내외 음원차트 석권, 뮤직비디오 조회수 최단기간 1억 뷰 돌파, 음반 최다 선주문량 등 각종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빌보드 1위’ 가능성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발표 당일부터 국내외 음원차트를 휩쓸었다.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1위를 비롯해 전 수록곡으로 국내 9개 음원사이트 순위에 올랐다. 특히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은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공개한 이날 오후 6시부터 이틀간 접속장애를 겪기도 했다. 멜론 측은 14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의 음원 발매에 따른 트래픽 증가량이 예상보다 많아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기록이 속출했다. 새 앨범은 14일 현재 전 세계 86개 지역 아이튠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개 직후 미국, 캐나다,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일본 등 83개 지역에서 아이튠스 ‘톱 앨범’ 차트 정상



글로벌 그룹답게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를 내놓자마자 각종 기록을 세우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14일 미국 NBC 간판 코미디프로그램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서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무대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미국 NBC-Will Heat

에 올랐다. 또 타이틀곡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등 67개 지역에서 ‘톱 송’ 차트를 석권했다. 뮤직비디오도 신기록의 연속이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사상 최단 시간에 1억 뷰를 돌파했다. 12일 오후 6시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37시간 37분 만에 14일 오전 7시37분경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겼다. 세계 최단 신기록이다. 앞서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가 62시간 만에 1억 뷰를 넘어선 기록을 25시간이나 앞당겼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케이팝 가수 가운데 최다 1억 뷰 뮤직비디오(총 18편)를 보유한 그룹으로 남게 됐다. 또 새 앨범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업체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200’에서 4위에 올랐다. 특히 국가 및 지역별 ‘톱 200’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4위와 24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12일 기준 미국 131만4000여, 영국 20만 7000여 스트리밍 건수를 각각 기록했다. 앨범 판매량도 기록적이어서, 발표 전날인 11일까지 30일 동안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이들의 앨범은 선 주문량만 302만여 장에 달했다. 이 같은 성과는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순위에도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빌보드 200’이 음반 판매량과 라디오 플레이 횟수, 스트리밍 횟수 등을 합산해 집계하는 만큼 이들은 그 1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은 14일 “BTS! 비틀스 이후 이런 팬덤은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세계 음악차트를 점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앞

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5월 3집 ‘러브 유어 셀프 전-티어’로, 9월에는 3집 리패키지 ‘러브 유어 셀프 셀-엔서’로 각각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14일 미국 NBC 간판 코미디프로그램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서 첫 컴백 무대를 가졌다. 이날 호스트로 출연한 할리우드 스타 에마스톤은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이어 5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톱 듀오/그룹’과 ‘톱 소셜 아티스트’ 등 2개 부문 후보에 올라 무대에 나선다. 이번 앨범에 참여한 스타트 업, 할시, 에드 시런 등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영연 기자 amyj@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강원 산불 기부 “썩스러워” 댄싱 스포츠 스타 “부끄러워”

축구·선행·CF로 화제가 된 손흥민

13일 6분만 뛰고도 모우라 골 도움
강원 도민 위해 1억 5000만 원 기부
아이스크림 광고, 동료들이 놀려요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최근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에게 ‘댄싱 스포츠 스타’라는 닉네임을 붙여줬다. 한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보인 신명나는 춤사위가 해외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점잖은 내용의 CF와는 거리가 멀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도 멋진 플레이를 보였다. 13일(한국시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허



토트넘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의 활약만큼이나 아이스크림 CF광고로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제공 | 유튜브

더스필드와의 2018~20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3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42분 교체 투입돼 6분 정도 뛰었지만 루카스 모우라의 헤트트릭을 완성시키는 골을 도왔다. 토트넘의 4-0 패승. 짧은 출전시간은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배려였다. 토트넘은 18일 맨체스터 시티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원정 2차전을 갖는다. 홈 1차전에서 1-0 승리를 챙긴 토트넘은 득점을 전제로 한 골차 패배를 당해도 4강에 오른다. 해리 케인과 밀레 알리 등 일부 주축들이 부상 이탈한 가운데 토트넘은 물오른 손흥민의 발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허더스필드전 이후 가진 일문일답.

-짧은 교체 출전이었지만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다른 동료들이 잘해주고 교체 후 부담 없이 경기를 했다. 홈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흐름이 유지 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승점 3점이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다. 집중해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시터 원정을 앞두고 있다.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팀으로 잘 뭉쳐 싸우나하면 좋은 경기력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자신감으로 뭉쳐 홈경

기처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새 안방이 개장한 뒤 계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그냥 즐기고 싶다. 많은 부담을 안 받고 싶다. 지금을 최대한 즐기고 싶고 더 좋은 모습,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모습 보이겠다.”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민들을 위해 기부 (1억5000만 원)를 했다. “피해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작지만 성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에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곳에서도 국내 상황을 다 아니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은 정말 내게는 썩스럽고 부끄스럽다. (피해) 복구가 하루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최근 아이스크림 광고가 화제인데. “창피하다. 축구 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 좋아해주시지만 (동료) 선수들은 놀리더라. 그래도 긍정적인 광고니까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고 그런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런던 | 허미영 통신원

타올 꼴찌·삼진왕 강정호, 부담감부터 털어내라

실전공백·흠린 강박증도 악영향
떨어지는 변화구에 연신 헛스윙
타율 0.105·삼진율 38% 밀바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내야수 강정호(32)의 부진이 예상롭지 않다. 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삼진은 커져야 쌓이고 있다. 시범경기 때와는 180도 다르다. 2년 가까운 실전공백과 그에 따른 부진이 강박증을 불러오는 듯한 양상이다.

강정호는 14일(한국시간)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원정 경기 9회초 대타로 출장해도 삼진을 당했다. 2-3으로 뒤진 가운데 1사 1-2루



피츠버그 강정호가 6일(한국시간) 신시내티와 홈경기 7회말 2루타를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 안타를 끝으로 강정호는 긴 침묵에 빠졌다. 이튿날부터 14일 워싱턴 원정경기까지 7연속 경기 무안타의 부진 속에 삼진만 10개를 당했다. 피츠버그가 맨슬베이(나아주) | AP뉴시스

찬서서 좌완투수 선 돌리들을 상대했으나, 볼 카운트 1B-2S서 4구째 몸쪽 높은

직구(시속 151km)에 배트를 헛들렸다. 팀도 1점차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강정호의 시즌 성적은 차마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시범경기 흠린 1위(7개)의 위풍당당함은 종적을 감췄다. 14일 현재 올 시즌 13경기에서 타율 0.105(38타수 4안타), 1홈런, 4타점, 4볼넷, 16삼진에 그치고 있다. 타율은 규정 타석을 채운 메이저리그 전체 196명 중 최하위다. 38.1%에 달하는 삼진율 또한 메이저리그 하위 5%에 속한다. 세이버메트릭스(Sabermetrics) 수치로도 마찬가지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의 RC/27(특정 한 타자에 게 한 경기 아웃카운트 27개가 모두 주

어질 경우 팀의 득점생산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정호는 0.38에 불과하다. 내셔널리그 최상위권인 코디 벨린저(LA 다저스)의 15.34에 비하면 강정호의 부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한 눈에 들어온다. 정규시즌 들어 삼진이 급증하는 데는 실전공백과 더불어 강박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뒤섞인 시범경기 때와 달리 정규시즌 들어서는 특히 떨어지는 변화구에 좀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부진이 거듭되자 타석에서 여유 없이 허둥대고만 있다. 6일 신시내티 레즈전(홈)에서 마지막 안타를 뽑아낸 이후 7경기 연속 무안타인데, 같은 기간 19타석에서 삼진은 10개로 급격히 늘었다. 하루빨리 반등의 계기를 잡고 심적 부담을 털어낼 필요가 있는 강정호다. 정재우 기자 jae@donga.com

복권건전구매 UPDown
구매금액 만 19세 이상
구매금액 10만원 이하

Lotto 6/45 854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9년 4월 13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0	25	31	32	36	43	3

1등 총 당첨금 2,015,310,240,500

등위 및 당첨개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6 3,421,706,750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 일치 + 1개 보너스 일치	44 77,766,063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1,865 1,834,696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99,152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716,083 5,000 원	5,000원

복권권리사: 흥진엔터테인먼트 | 지역별 문의: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ery.co.kr

복권 구입시 주의 사항: 복권은 만일 1년 10개월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